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4월 21일
제1997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8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4-15)



〈착한 목자〉, 5세기, 모자이크, 갈라 플라치디아의 무덤, 이탈리아 라벤나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나해)

제 1 독서 사도 4,8-12 |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제 2 독서 1요한 3,1-2 |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11-18 |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1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12 샳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몰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13 그는 샳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16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18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성소주일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은 '성소 주일'이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聖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이다. 성소 주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마태 9,37-38)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정하였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계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일깨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부활 제4일 복음 묵상

부활 제4주일의 복음은 '착한 목자'에 대한 긴 담화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복음은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이를 부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선언 뒤에는 그 '착함'의 이유가 설명되는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목숨'(그리스 말 '프쉬케')은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도로 강조된 단어인데, '숨' 또는 '호흡'을 뜻하며, 인간의 영혼, 생명, 활력 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 숨과 영혼을 내주어 상대를 대신 살게 함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목숨을 내놓지 않는 목자'는 '샳꾼'입니다. 샳꾼은 자기가 살고자 양들을 이용하고 불필요해지면 내다 버립니다. 그가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나는 착한 목자다.” 다음에는 '얇'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안다'(그리스 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배우는 인지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의 본질을 섬세하게 깨달아 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2독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라고 권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1독서에는 작은 반전이 등장합니다. 착한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만, 동시에 그 착한 목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목숨을 내놓는 목자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시기에 착한 목자 본문을 봉독하는 이유입니다.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맡겨진 양들을 하나하나 알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의 숨이 양들의 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 '착함'만이 목자가 가지는 진정한 힘이며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평화를 건설하라는 부르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해마다 성소 주일은 소중한 선물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께 충실한 순례하는 백성의 일원인 우리가 당신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여 우리의 다양한 생활 신분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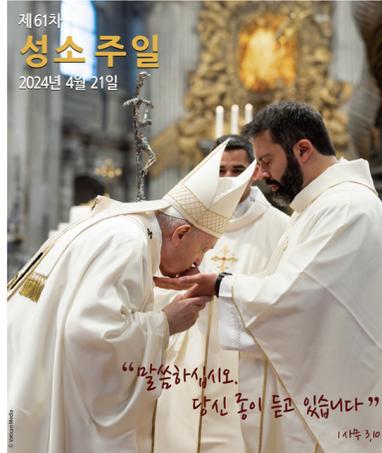
그러하기에 성소 주일은 언제나 신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아우르는 부르심에 응답한 모든 이의 꾸준한 그리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는 노력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정 중에 있는 백성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둔 외딴섬들이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소 주일은 시노달리타스의 특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인지 식별하고자 서로 경청하고 함께 걸어가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2025년 희년으로 나아가는 공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로서 성년(聖年)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다양한 선물 가운데에서 자신의 성소와 그 자리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꿈을 알리는 전령이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으로 또 애덕과 협력과 형제애의 유대로 결합된 한 인류 가족을 꿈꾸십니다.

성소 주일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아버지께 거룩한 성소의 선물을 청하는 기도에 특별히 봉헌된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희망의 순례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더없는 축복임을 재발견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이 자라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기도가 희망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편에 희망이 존재하지만, 그 희망에 이르는 문은 나의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수요 일반 알현 교리 교육, 2020.5.20.).



희망의 순례자, 평화의 건설자

우리 그리스도인 순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자양분을 얻는 내적 여정에 힘입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평화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걸음을 내딛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며 이를 실현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으로 가득한 안목을 길러,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충실히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성취된 구원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에 힘입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에 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의 순례자이며 평화의 건설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생활 신분에서 나름대로 작은 방식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희망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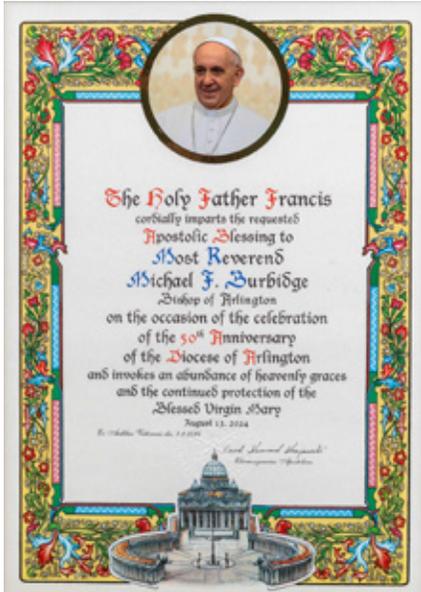
투신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저마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성소를 찾고 희망의 순례자이며 평화의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무관심을 뒤로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곤 하는 감옥의 문을 열어젖힙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투신합시다.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의 전령이자 새 생명의 원천, 형제애와 평화의 장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일어나 희망의 순례자로서 길을 나섭시다.



알링턴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알링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대사 조건은

- (1)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2) 고해성사,
- (3)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4)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5)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참고: 대성당 위층의 보수 공사가 계속됨에 따라, 전대사는 대성당 아래층에 있는 버크 홀(Burke Hall)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ishop/public-messages/2024/plenary-indulgence-opportunity-for-visitors-of-the-cathedral-of-saint-thomas-more/>>

교구 황금희년 축제



- 일시 : 6월 8일(토)
- 장소 : Warren County Fairgrounds in Front Royal
- 교구설정 50주년 축하행사로 수천 명이 참석 예정 (전 연령대 참석 가능)
- 주교님 미사와 헤드라이너 Soul/Gospel Indie 아티스트 Jervis Campbell과 컬트 록밴드의 라이브 음악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 핫도그&햄버거, 타코,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간식과 와인, 맥주 등 제공
 - 놀이기구, 인플레이터블, 게임
 - 트리오, 살바도르, 베트남 무용 등 다문화 음악과 공연
- 행사는 오후 3:45부터 시작되며 오후 9시 불꽃놀이를 끝냅니다.
- 무료 식사를 받으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jubilee-fest/>

“COME AND SEE”

John 1:39



일시 : 4월 21일(일) 오후 2시 - 7시

2024년 성소주일(한인 성소대회)에 CYO와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월 21일(일) 5시 미사는 성소주일 행사 관계로 쉽니다.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1 사회복지 후원을 위한 2차 현금

- 제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후원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4월 21일(일) 오전 11:30 (B-3,4)

3 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4월 21일(일) 오전 11:30 (A-1,2,3,4)

4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4월 2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울뜨레아 회합

- 일시 : 4월 26일(금) 오후 8시 (A-1,2,3)

6 단체부 홍보의 날

- 일시 : 4월 28일(일) 오전 8시/10시, 오후 2시/5시
미사 후 (친교실)
- 본당 내 14개 신심 및 활동 단체들을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교우분들께 일인 1단체 가입을 권유드리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 4월 28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8 대부모·대자녀 프로그램

- 일시 : 4월 28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대부모는 대자녀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파수꾼같은 사람입니다.
- 대부모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새 신자들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9 CYO 대학생들을 위한 커리어 소개

- 일시 : 4월 28일(일) 오후 3시 (A-1,2)
- 커리어 주제 :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 공학)
- 대상 : CYO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 커리어 소개자 : 이재훈 빅토리오 (베드로회 총무, 정보통신 박사)

10 제85차 예비신자 모집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
- 입교식 : 5월 5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김영희 모니카 (571) 338-8844
 -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비자 모집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1 Bash 2024 (주일학교 CCD)

- 알링턴 교구 버빗지 주교님이 교구 내 6~8학년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 일시 : 5월 4일(토) 오후 3:30 - 8:30
- 장소 :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 등록 기간 : 주일학교 수업 전, 후 (교무실)

12 칠순(교회) 감사 미사

- 일시 : 5월 9일(목) 오후 7시
- 제2의 청춘이라고 불리는 칠순(교회)이 되시어 지금처럼 멋지게 자리매김을 해 주시는 분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연 미사를 봉헌하려 합니다.
- 문의 : 강세원 바오로 (703) 489-3938

13 2024년 동중부 성령쇄신 지구대회

- 일시 : 5월 11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성당)
- 주제 :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로마 5,2)”
- 회비 : \$20 (점심 제공)
- 문의 : 박은옥 수산나 (703) 909-2980

14 성인 견진 성사 신청

- 서류 접수 : 4월 28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
- 준비 서류 :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혼인 증서
- 견진식 : 5월 19일(일) 오후 2시
Church of the Nativity(Burke)
- 견진 교리 : 5월 17일(금) 오후 8시

15 St. Lucy Food Project

- 알링턴 교구에서 주최하는 Food Donation Drive에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도네이션 항목 : Jam&Jelly, Canned Meat/Tuna, Rice, dried beans, Canned Corn, green beans, pasta/pasta sauce, etc.

16 8시 성가대 반주자 모집

- 8시 성가대와 함께하실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해 주실 분은 지휘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진 수산나 (703) 203-7062

17 청년 그룹 로고스로 초대합니다!

- 로고스(청년 그룹)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눠보아요. 오후 5시 청년 미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연빈 켈라 (703) 732-0308

18 부활 제대 꽃 봉헌 감사합니다

- 제단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제대 꽃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총액 : 198명, \$6,755)
- 2024년 부활 제대 꽃 봉헌자 명단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4/21 이번 주	패어팩스 2-1구역
04/28 다음 주	패어팩스 2-2구역

성당 청소

04/21 이번 주	애난데일, 패어팩스 1구역
04/28 다음 주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을 위한 CYO SUMMER CAMP 등록 시작

- 일정 : 2024년 7월 25일(목) - 28일(일)
- 장소 : Prince William Forest Park
- 등록 : 6월 16일(일)까지, 주일학교 교무실
- 참가비 : \$150
- 문의 : 구아를 데레사 (703) 599-8869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4월 14일(부활 제3주일)

봉헌금	\$ 9,094.00
교무금	\$ 3,770.00
교무금(신용카드)	\$ 6,150.00
감사 현금	\$ 335.00
온라인 봉헌	\$ 1,025.00
합계	\$ 20,37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4월 25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4월 26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4월 28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다큐멘터리 사제 - [특집 다큐] '3일간의 수도원 여행'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